

전남 동계훈련장 1959개팀 6만2026명 찾았다

여수·광양·순천·해남·강진서 구슬땀...수도권 60% 차지

연인원 56만명 달성 무난...경제 파급효과 500억 육박

겨울철 온화한 기후 때문에 동계 전지훈련지의 메카로 떠오른 전남도가 올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내 곳곳에서 전지훈련 열기로 가득 찼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전남을 찾은 동계전지훈련팀은 1959개팀, 6만2026명(연인원 48만9941명)이나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495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목표인원 7만2000명(연인원 56만명)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군별 상위 유치지역은 여수, 광양, 순천, 해남, 강진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축구, 육상, 야구 순,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29만5000명)를 차지했다.

팀별로는 초·중·고등학교 팀이 75%(3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지난 2010년 연인원 55만여 명의 전지훈련단 유치로 사상 첫 50만 명 고지를 밟은 뒤 지난 2011년 AI로 주춤했으며, 이후 2012년부터 다시 50만명을 넘어섰다.

김경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전지훈련은 관광과 함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스포츠산업과장은 "전지훈련은 관광과 함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별교에 꼬막 종묘 배양장 만든다

보성군 80억 들여 장암리에 이달말 완공



최근 생산량이 급감한 꼬막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꼬막 종묘 배양장이 보성군 별교읍에 들어선다. (조감도) 보성군은 지난해 6월 별교읍 장암리 일원에 꼬막 종묘배양장을 착공, 이달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사업비 80억원이 들어간 꼬막 종묘배양장은 부지 2만4782㎡·건축면적 6685㎡(지상 1층) 규모로, 배양동과 관리동, 부대시설을 갖췄다.

군은 "종묘 배양장이 건립되면 꼬막 종패의 원활한 공급으로 가격 안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참꼬막을 비롯해 새고막, 맛, 피조개, 굴, 백합, 모시조개 등의 종패를 대상으로 생산하는 최고의 배양시설을 갖춘 패류 생산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치패에서 종패 생산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꼬막 중간육성장' 조성사업(6개소·12억 원)을 신청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종묘 배양장에서 치패를 생산하고, 꼬막 중간육성장에서 종패까지 키워 어민에게 싼값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별교=김윤성·김용백기자 kim0686@

고흥 과역면 첫 봄꽃축제

고흥군 과역면 주민들이 봄꽃축제를 연다.

고흥군 과역면 부녀회는 15일 신곡리 인화마을과 대화농장 일원에서 '제1회 과역면 참살이 매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의 주무대를 이루는 대화농장은 4만여평 규모로 고흥에서 가장 넓다.

이번 축제는 과역면 인화마을의 매화를 비롯해 대표 특산물인 바지락, 꼬막 등 지역 특산물을 소개한다.

'제1회 참살이매화축제'

내일 신곡리 대화농장

역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고흥군 전속예술단의 길놀이 농악을 시작으로 모듬북 공연, 판소리 창, 색소폰·풍바 공연, 초청가수 공연, 군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주민들은 과역 청정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바지락·굴·꼬막 등을 재료로 회무침, 해물과전, 수제비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향토 음식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타지역 대화보다 일주일 먼저 꽃을 피워 상춘객들에게 봄의 시작을 알린다"며 "가족들과 함께 과역을 방문해 은은한 매화 향기를 느껴 보고 싱싱한 해산물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익종기자 gjji@



해조류박람회 자원봉사단 발대

'2014 원도 국제 해조류박람회'(4월 11~5월 11일) 자원봉사자들이 13일 원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있다. 자원봉사는 행사안내, 전시·체험 행사 운영지원, 주차안내, 통역, 환경정비, 수화 등 6개 분야에 450명이다. 일반 자원봉사 408명, 통역 40명, 수화 2명이다. 외국인 통역은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대거 신청했다.

·/원도군 제공

'일자리 만들기' 앞장서는 지자체들

고용부 평가, 나주시 최우수상·순천시 우수상·완도군 특별상 받아

나주시와 순천시, 완도군이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나주시에 최우수상(상사업비 1억원)을, 순천시에 우수상(상금 9000만원)을, 완도군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번 일자리 평가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 및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나주시는 2012년부터 2년 연속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데 이어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해 일자리 창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나주시는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분만 아니라 고용률도 67.6%로, 전국 시 단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지표상으로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본격적인 입주에 맞춰 직업훈련과 취업박람회, 일자리포럼 등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의 결과고 분석된다.

지난 2011년 5월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나주 직업훈련원은 취업의 실질로서 구인·구직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번기때 부족한 농

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추진한 농촌인력 지원사업은 농촌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열린 순천시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생태정원 관련 일자리 창출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생태정원과 관련해 117분야에 1만1590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완도군은 지리적 불리함, 산업 구조 편중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다.

·/나주=정철현·순영철기자 yjcon@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안 도초 '수국공원' 준공

나무수국 등 3만여그루 식재 6~8월에 축제 관광객 유치

신안에 '에기동백'에 이어 '수국' (水菊) 공원이 문을 열었다. 동백 개화기(12~2월)외에도 수국이 피는 6~8월에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신안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군은 12일 도초읍 수국 문화센터에서 수국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2005년 폐교한 도초서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8억원을 들여 수국 테마공원을 조성했다. 10.2ha에 전통정원과 수국공원, 소리마당, 웰빙정원을 주제로 수국, 산수국, 나무수국, 불두화 등 15종 3만여 그루의 다양한 수국을 심었다.

군은 교실 243㎡를 리모델링해 추억 공간을 만들었다. 졸업생 사진을 전시, 학창시절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도초도는 국립공원, 갯벌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생태 수도소 조성 등 생태자원이 매우 다양하고 잘 보존된 청정 지역이다.

군은 앞으로 수국 개화기인 6~8월에 수국 축제를 열어 자연

과 문화가 공존하는 볼거리, 체험 학습, 휴식·휴양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수국공원을 보완·확장하고 산책로 꽃길을 조성해 수국공원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폐교를 활용한 수국 문화센터와 수국 유리온실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앞서 군은 지난 2009년 4월 개장한 압해도 천사섬 분재공원내 4ha에 5000여 그루의 에기동백을 식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이곳에서 열린 제2회 에기동백 축제에는 전국에서 2만 9000여명이 찾은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곳은 1.1km 길이의 에기동백 꽃길을 걸으며 피고지는 50여만 송이의 동백꽃과 함께 200여점의 세계 희귀품종의 동백분재도 감상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도초 수국공원이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세계 생태수도 섬 조성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테마섬 이미지를 부각시켜 관광 자원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을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을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InstaLay**
SGS UKAS SGS UKAS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촌**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쥬스)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
·풍부한 육즙
·부드럽고 이삭이 배는 맛
·물집튀기스와 지냉 허브 육성
·최소한의 부재료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